

1. 비교/대조

2010.09 [13~17]

인문, '동양에서의 천(天) 개념의 변천 과정'

지문해설 : 동양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었던 '천(天)'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천(天)'의 개념이 '자연천(自然天)→상제천(上帝天)→의리천(義理天)'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각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그 개념이 당대인의 삶에 미친 영향 또한 밝히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동양에서의 '천(天)' 개념의 변천은 그 개념이 지닌 한계가 보완되며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천(自然天)'의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을 할 수 없었으며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를 알 수 없었는데, 이는 '상제천(上帝天)'의 개념이 출현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의리천(義理天)'은 '상제천(上帝天)'이 억압의 성격을 나타냄에 따라 출현한 것이다.

[주제] 동양에서 '천(天)'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과 그 양상

1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인식되어 왔다. 즉 천은 인간에게 자연 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천명(天命)'은 '상제천(上帝天)' 개념 하에서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등장하였다. ② 동양에서는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동양에서 천은 현실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③ '자연천(自然天)' 개념에서는 천을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⑤ '내면화된 천'은 '상제천(上帝天)'이 아니라 '의리천(義理天)'과 관계가 깊다.

14.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동양에서 '천(天)'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천(自然天)→상제천(上帝天)→의리천(義理天)'의 과정으로 '천(天)' 개념이 바뀌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의 '개념의 의미 변천'이다. **정답 ②**

15. 비판적 사고(정보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자연천(自然天)'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천(天)'을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했다. 이는 '자연천(自然天)' 개념 하에서 인간이 자율적 존재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상제천(上帝天)'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력 행사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타율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③ '의리천(義理天)' 개념에서 천은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④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천이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었다. ⑤ 천명 의식이 수정되면서 의리천 개념이 '의리천(義理天)'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타율성은 축소되었다.

1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ㄱ은 천을 자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이므로 '자연천'에 해당한다. 천의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한 ㄴ도 역시 '자연천'에 해당한다. ㄴ에서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는 '상제'에 대응되므로 ㄴ은 '상제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ㄷ은 수정된 천명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의리천'에 해당한다. **정답 ④**

17.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은 '드러나는 기미, 경향, 느낌 따위가 보통 정도보다 뚜렷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①의 '질어'는 폭우가 내릴 기미가 뚜렷해졌음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② '액체 속에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진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③ '안개나 연기 따위가 자욱하다.'는 의미이다. ④ '일정한 공간에 냄새가 가득 차 보통 정도보다 강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⑤ '그림자나 어둠 같은 것이 아주 뚜렷하거나 빛깔에 아주 검은색이 있다.'는 뜻이다.

2011.11 [44~46]

사회, '채권 가격의 결정 요인'

지문해설 : '현재 가치', '만기', '지금 불능 위험' 등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권 투자자는 순수익의 크기를 따져 채권을 매입하는데,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채권 가격은 만기와 지금 불능 위험에도 영향을 받는다. 만기가 길수록 채권가격의 변동 위험이 크다. 이렇듯 위험 요인이 크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상승하면 채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 등의 다른 시장 상황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44. 비판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이 글에서는 채권의 가격을 :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빚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채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의 여러 요인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금리가 채권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채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채’, ‘회사채’ 등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이는 지급 불능 위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자들은 지급 불능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만큼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해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채권의 현재 가치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은 채권의 액면 금액이 아니다. ② 채권의 순수익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것이다.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다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순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수 있다.

46. 추론적 사고(그래프를 통한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져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보기>의 그래프는 이러한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채권 가격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으로 그래프에 적용하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이다. 기울기가 작아진 것은 ㉠이다. ㉡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고 있다. ㉢의 경우 채권 가격이 A보다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것

을 나타내는 것은 ㉢이다. [정답] ③

2012.11 [17~20]

인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 말하고, 언어에서의 명제와 세계에서의 사태가 각각 대응한다고 말한다. 이때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닌,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따라서 명제 역시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며,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은 실제 일어난 것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결국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은 의미 없는 명제라고 말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형이상학적 철학에 대해 비판한다.

[주제] 그림 이론을 통한 비트겐슈타인의 기존 철학에 대한 비판

17.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을 통해 세계와 언어의 관계를 규명한다. 세계에 속하는 사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명제라는 것이다. 이때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랬을 경우에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④의 경우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 모두를 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모두가 참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는 진술이 있다. ②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가 논리실증주의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1문단에 진술되어 있으며, 2문단을 보면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한 것이 ‘그림 이론’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명제와 대응하는 세계의 요소가 ‘사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다. ⑤ 4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등과 관련된 논의는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없는 명제’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을 가리킨다. ⑤의 명제는 경험적 세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언급한 것으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 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험적 세계에 대한 언급으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② 과학의 법칙으로 경험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③ 실존했던

인물의 탄생 시기와 지역을 언급한 것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다. ④ ‘우리 반 학생’이라는 실재하는 대상에 대해 ‘현철’이라는 구체적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19. 사실적 사고(의미 관계의 파악)

정답해설 : ㉠과 ㉡은 그림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때 ‘모형’은 ‘언어’로, 실제 사건은 ‘세계’로 바꿀 수가 있다. 또한 언어는 ‘명제’로 구체화되며, 세계는 ‘사태’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의 연결도 ㉠과 ㉡의 관계에 해당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의 ‘논리적 그림’은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명제 중에서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를 비트겐슈타인은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의 관계는 상하의 논리 관계에 속한 것으로, ㉠과 ㉡관계와는 다르다. ㉠의 형이상학적 주체는 경험할 수 없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기에 경험적 세계와는 대립된 것이다.

20. 비판적 사고(핵심 논리에 따른 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는 비트겐슈타인의 말로, 그는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그 내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문을 보면, 그는 의미 있는 명제는 실재하는,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내용을 연결시키면, 결국 “논리 철학 논고”는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의 책은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넘어서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비트겐슈타인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는 언어에 대한 분석이므로, “논리 철학 논고”가 이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②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를 다룬 이 책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아니다. 또한 만약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이라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일어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사태이다. 이때의 사태를 언급한 명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④의 답지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라고 진술하고 있어 앞뒤의 진술 내용이 모순이 된다. ⑤ ㉠은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2014.06B [28~29]
과학, ‘입체 지각’

지문해설 : 이 글은 사람이 입체를 지각하는 방식 중의 하나 단안 단서를 설명하고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

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는 정보를 말한다. 한 눈으로 얻는 정보는 2차원이지만, ‘시각(視覺)의 차이, 직선 원근, 결 기울기, 운동 시차’ 등을 활용해서 입체 지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제] 단안 단서에 의한 입체 지각의 방법

28.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의 2문단에 의하면, 직선 원근은 단안 단서의 하나이므로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에서 일부 동물들은 단안 단서로만 입체지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더라도’ 즉 단안 단서만을 활용할 수 있을 때에도 ‘경험을 통해’ 입체로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라는 구절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⑤ 4문단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와 3문단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가 물체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를 연결지으면, 새가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운동시차’를 얻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 현상에 대한 적용

정답해설 : (가)에서 다람쥐의 행동은 관찰자인 다람쥐가 운동할 때, 정지해 있는 여우와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운동시차를 이용해서 여우와의 거리를 파악한 행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가)에서 다람쥐의 행동은 양안 단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안 단서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3문단 1행을 보면,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를 통해 다람쥐에게서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천천히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 6행

에서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안 단서이므로 축구공의 크기 변화는 결 기울기로 볼 수 없다. ⑤ 2문단 2행에서 ‘시각의 차이’ 활용은 단안 요인이므로 눈 한쪽을 가려도 여전히 축구공이 커지는 것을 축구공이 다가오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4.11B [19~21]

인문,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심신 이원론’과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심신 일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심신 이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상호 작용론, 평행론, 부수 현상론’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상호 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입장이고,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심신 이원론은 각자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상호 작용론’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평행론’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수 현상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 심신 일원론인데, 심신 일원론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관계에 대한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의 입장

1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언급된 두 가지 상식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구분된다는 생각’과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동일론(심신 일원론)’은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육체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론’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심신 이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 이원론’에서 는 두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상호 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평행론’은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이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평행론’에서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④ 4문단에서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평행론’은 모든 물질적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물질적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행론’과 ‘동일론’은 모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부수 현상론’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진술은 ‘평행론’의 입장일 뿐 ‘동일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상호 작용론’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적 현상이라고 보는 ‘부수 현상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부수 현상론’에 따르면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 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만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에서 ㉔(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는 조수 간만과 달의 모양 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육체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㉕(조수 간만)은 ㉔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면서 개펄의 형성이라는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육체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㉖(달의 모양)는 ㉔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지만 ㉔에 의해 ㉔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인과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즉 ㉔가 ㉖의 원인이 되지만, 역으로 ㉖가 ㉔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㉕

2015.06B [21~24]
인문, ‘정합설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진리에 대한 여러 관점 중 하나인 정합설에서의 ‘정합적이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관계가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합적이라는 것을 모순 없음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전의 명제와 모순만 되지 않으면 추가되는 명제는 모두 참이 된다. 그렇지만 관련 없는 명제도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합적이라는 것을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다른 반드시 참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의 수가 지나치게 제한되기 때문에 정합적이라는 것을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설명적 연관은 두 명제 사이의 그럴듯한 연관성만 있으면 정합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측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확률 이론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주제] 정합설에서 ‘정합적이다’의 의미 -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

21.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모순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으로 정의되는 관계인 ‘함축’에서는 모순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가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㉒ 1문단에서 정합설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다른 명제와의 관계가 정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인 명제와 정합적인 관계에 있는 새로운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㉓ 정합적이라는 것을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모순이 있는 명제를 말한다. ‘함축’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으로 설명되므로 모순이 있는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 거짓이 된다. ㉕ ‘설명적 연관’의 한계에 대해서는 5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22.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다는 것이 참이라면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이 참이 될 수 없다. 만약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다는 것이 거짓(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작거나 같은 경우)이라면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둘은 모순 관계가 된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㉒ 민수가 농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데,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경우라면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㉓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이익도 손해도 아닌 경우라면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㉔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목요일이라면 두 명제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㉕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역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명제와 함축 관계에 있는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라는 명제는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는 명제는 <보기> 명제와 전혀 관련 없는 명제이지만, <보기> 명제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는 참이 된다. ㉒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동네가 정전이 되면 우리 집도 반드시 정전이 된다. 그러므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보기>의 명제가 참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집이 정전이 되었다.”는 명제도 참이 된다. ㉓ 예비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된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된다.

④ <보기>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는 명제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 명제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밝혀내다’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진상, 옳고 그름 등을 판단하여 드러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의 ‘해결하다’는 제기된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밝혀내다’를 ㉠ 대신에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2015.11B [17~20]

인문, ‘신채호의 역사관’

지문해설 : 이 글은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으로 본 신채호의 역사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채호의 역사관의 핵심 개념은 ‘아’로, ‘아’는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이때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뒀’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는데,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고,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상속성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인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상속성은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실현되며 보편성은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는데,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하게 된다. 식민 지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으며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선 민중을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비아 속의 아’와의 연대를 통해서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주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으로 인식한 신채호의 사상

17. 글의 개괄적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신채호가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면서 대

아의 개념을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대아의 개념이 생겨난 역사적인 기원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 요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자성’이 ‘나의 나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로서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로서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조선 민중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함께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중 연대의 의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8. 핵심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는 적응력이 약화되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자성을 갖춘 모든 아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대아로서의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다는 것은, 대아의 고유성이 약하고 적응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유성을 상속성과 적응성을 보편성과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이 실현되기 어렵다. ⑤ 소아는 대아와 달리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상속성과 보편성의 실현 여부를 소아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19. 글의 논지 이해

정답해설 : 4,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조선 민중을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비아 속의 아’와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연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아’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신채호가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술하였다고 언급한 점에서 『조선상고사』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아로서의 조

선민족의 자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신채호는 동양주의가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아의 향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신국민을 강조한 것에서 신채호가 일본 제국주의가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비아 속의 아)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20. 사전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둠.'이다. '어떤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은 '선정'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③**

2015.11B [27~30]

예설,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논외로 취급했던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반발하여 미감적 판단력, 즉 미적 감수성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과 달리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가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고,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며,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칸트는 취미 판단에는 공통감이 전제로 작용하므로 취미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칸트의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원리로서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 칸트의 취미 판단의 원리 및 의의

2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라고 언급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하면서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와 관련하여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제의 적용 범

위도 '규정적 판단'과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세계'가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개념으로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1문단에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선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없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에서 '권선징악'은 교훈적 내용이라는 다른 맥락이 끼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취미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가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고,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용하다'는 실용적 유익성이라는 다른 맥락이 끼어든 것이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③ [A]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예술'은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해당하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⑤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액자식 구조'라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다른 맥락으로 끼어들었으

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9.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규정적 판단’은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1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언급하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적 규정은 규정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통의 미적 감수성을 전제로 한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관적 보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지니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소지하다’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물리적 대상에만 적용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기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여기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펼치다’는 ‘생각, 꿈, 계획 따위를 실현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피력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 놓고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펼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③ ‘끼어들다’는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개입하다’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끼어들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퍼지다’는 ‘어떤 물질이나 현상 따위가 넓은 범위에 미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확산되다’는 ‘흩어져 널리 퍼지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퍼지다’와 바꿔 쓸 수 있다.

2016.11B [17~20]

인문,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지문해설 : 이 글은 도덕적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도덕적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운을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으로 나누고, 운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편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도덕적 운의 존재는 부정될 수 있으며,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로 국한한다면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입장의 차이

1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2, 3, 4문단에서 ㉠은 그런 ‘도덕적 운’을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으로 나눈 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도덕적 운을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5문단에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의 결과적 운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난 어떤 화가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6문단에서 글쓴이는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므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 글쓴이는 모두 ‘상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상식’을 존중하는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은 도덕적 운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눈 후, 2, 3, 4문단에서 각각의 도덕적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서 도덕적 평가에 개입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5문단에서 글쓴이 역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과 글쓴이 모두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은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6문단에서 글쓴이는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 6문단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니므로 도덕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 달리 글쓴이가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18.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에 따르면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도덕적 평가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ㄴ’은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리는 ‘강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ㄷ’은 글을 모르는 ‘무지’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를 찢으며 논 경우에 해당하므로 ‘ㄴ’과 ‘ㄷ’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ㄱ’과 ‘ㄹ’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1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도덕적 운(‘결과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6문단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성공 여부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비난받는 이유는 무책임한 행위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의 A와 B는 똑같이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는 축구 선수이다. 그러나 A는 상대팀 골키퍼의 실수로 골을 넣은 반면, B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하였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골을 넣지 못한 B는 골을 넣은 A에 비

해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는 성품이 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6문단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이와 같은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으며, <보기>의 상황은 결과적 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가,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우리의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A와 B의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은 같다고 하였으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가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보기>의 A와 B는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 동기가 같으므로 3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황적 운에 따라 똑같은 두 사람 중 누군가의 성품이 발현되기도,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4문단에서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A와 B는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 동기가 같으며 골을 넣었는지의 결과가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불공평하게 보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정답해설 : ‘국한(局限)’의 사전적 의미는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이다.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씬.’을 뜻하는 단어는 ‘적용(適用)’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기반(基盤)’의 사전적 의미는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이다. ② ‘거론(擧論)’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이다. ③ ‘개입(介入)’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이다. ⑤ ‘평하(賤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이다.

2017.11 [16~20]
인문, ‘지식의 구분’

지문해설 : 이 글은 지식의 구분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과 이와는 상반된 입장인 ‘과인’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하였다. 반면, 과인은 이러한 구분을 부정하고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을 상정하여 지식에 대해 설명하는 ‘총체주의’를 주장하였다.

[주제] 지식의 구분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과인의 주장

1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 의하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가설을 시험한다고 하였으므로,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과인은 2문단에서 가설을 포함한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②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과인은 4문단에서 지식의 변화가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①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은 존재하는 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과인은 3문단에서 분석 명제가 지니는 순환성을 바탕으로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인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고, 4문단에서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③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④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판단하여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과인은 2문단에서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고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 예측이 도출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④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⑤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은 분석 명제로, 과학적 지식은 종합 명제로 구분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로 판단하였으므로,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4문단에서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과 같은 중심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시험되는 과학적 지식과 같은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⑤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17.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과인은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구분하는 것을 부정한다. 두 번째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의적 표현은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필연성 개념은 다시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라는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면서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의하면 포퍼는 예측이 맞을 경우보다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②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하여 미혼임을 확인하는 경험적 방법은 분석 명제임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과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동어 반복 명제는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이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했을 때 참, 거짓이 바뀌는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18.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기되는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는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실용적 필요에 따라 전체 지식인 ㉔의 수정을 통해 가설인 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인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가설인 ④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 대부분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지만 실용적 필요로 인해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측인 ⑥가 거짓으로 밝혀져서 ③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수정 부분은 실용적 필요에 따라 주변부가 될 수도 있고 중심부가 될 수도 있다. ③ 2문단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설인 ④와 전체 지식인 ③로부터 예측인 ⑥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수정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인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는 전체 지식인 ③의 주변부, 즉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지만, 중심부 지식 중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논리학 법칙과 같이, 경험과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에 직면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총체주의는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예측과 경험의 충돌로 인해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가설이 반드시 틀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총체주의의 입장과 동일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다. ② 4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어떤 수준이나 한계에 미치다’의 의미를 지닌 ‘다르다’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잇따르다’는 ‘사건이나 행동이 이어 발

생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봉착하다’는 ‘어떤 상태에 부딪치다’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회귀하다’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다’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기인하다’는 ‘어떤 것에 원인을 두다’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2018.09 [27~32]
과학+인문,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역학과 비고전 논리’

지문해설 : 이 글은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고전 역학과 달리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을 설명한 후, 이러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한다는 견해가 논리학에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을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과 반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공존하고 있는 미시 세계의 팽이를 가정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이 미시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논리학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과 관련해서는 프리스트의 주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하면서 ‘참’과 ‘거짓’만이 아니라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이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있는 LP를 제시하였다.

[주제] 두 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함을 보여주는 양자 역학과 두 개의 상호 배타적인 진리치가 공존하는 비고전 논리

2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의 앞 절을 보면 아인슈타인은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에 적용하면, 아인슈타인은 관찰(달을 보는 일)이 물체(달)의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는 점을 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에는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관찰 이전에도 존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선지의 진술은 양자 역학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관찰하고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것은 관찰 자체가 달의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② 1, 2문단에서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문단은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거시 세계와 달리~’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시 세계의 팽이와 미시 세계의 팽이를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하며 관찰을 통해 그 상태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미시

세계에 국한하였다. 즉 거시 세계에서도 관찰을 통해 상태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자 역학의 관점을 수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선지의 진술은 양자 역학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관찰 이전에는 미시 세계의 팽이가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데, 선지의 진술은 이와 같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관찰에 의해 물체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견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관찰’에 의해 존재 여부의 확률을 따지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28.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2문단을 보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네 자리의 이진수를 4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해도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2문단의 설명대로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가 존재하므로, 선지에 제시된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24개, 즉 16개이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문의 3문단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가 상태의 공존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하나의 비트에 0과 1 모두를 담을 수 있어서 연산 처리 횟수를 줄임으로써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지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② <보기>의 2문단을 보면 일반 컴퓨터는 2비트를 이용하여 두 자리 이진수를 연산할 때 4번, 즉 이진수의 개수와 같은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컴퓨터로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면 세 자리의 이진수 개수만큼인 23번, 즉 8번의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그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보기>의 1문단에 따르면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처리 횟수와 연산 속도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로 처리할 때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8배 빠르다. ③ 한 자리의 이진수는 0과 1로 2개가 있다. 따라서 1비트를 이용해 이를 처리하려면 일반 컴퓨터는 2번의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다르다.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횟수는 한 번이고,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횟수도 한 번이다. 따라서 두 속도는 같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자기 지시적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다. 선지의 진술로 볼 때 선지에 제시된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도 자기 지시적 문장이므로 거짓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 중 예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면, 선지의 문장은 봉어빵에 봉어가 없다는 것을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 아니므로 자기 지시적 문장이 아니다. ③ 4문단을 보면 이치 논리는 ‘참’ 또는 ‘거짓’의 진리치를 가지며, 자기 지시적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다. 선지에 제시된 문장은 거짓말쟁이 문장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갖지만, 이치 논리에서도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다만, 이치 논리로는 그 진리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뿐이다. ④ 4문단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의 예로 든 것 중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은 고전 논리에서도 진리치를 ‘참’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이 문장은 모두 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 있다면, 실제 음절은 열일곱 개인데 자기 지시적 문장에서 여덟 개라고 했으므로 고전 논리에서는 이 문장에 진리치를 ‘거짓’으로 부여할 것이다. ⑤ 5문단에서 비교전 논리를 주장한 프리스트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이 거짓말쟁이 문장은 아니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0.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 지문의 6문단에 따르면,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는데, 전건 긍정 규칙은 전건인 P가 ‘참’이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 따라서 선지에 제시된 것처럼 조건문 ㉠과 그것의 P가 ‘참’이면 Q는 반드시 ‘참’이다. 즉,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비교전 논리 중 하나인 LP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니고 있다. LP에서는 조건문 ㉠의 전건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 Q가 ‘거짓’이면 조건문 ㉠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조건문 ㉠과 조건문의 전건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경우 Q는 ‘거짓’이 된다. ③ 선지에서 제시한 내용은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할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고전 논리에서는 ㉠과 P가 참이면 Q는 반드시 참이다. 따라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가 ‘거짓’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A는 이치 논리인 고전 논리

를 받아들이고, B는 LP는 물론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는 (≡)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B는 LP와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만 B도 (≡)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은 미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관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과 (≡)은 거시 세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때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B는 (≡)과 (≡)에 대해서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로 판단할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로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참'이라고 주장할지 '거짓'이라고 주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두 개의 진리치 외에는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B는 LP와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인정한다. (¬), (¬)은 미시 세계에 해당하는 전자의 관찰 이전 상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연결된다. 따라서 (¬)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③ (≡)과 (≡)은 모두 거시 세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A와 B 모두 (≡)이 '참'일 때 (≡)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④ B는 (¬), (¬)이미 시 세계에서 관찰 이전 상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3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의 '지니게'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게'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것을 한자어로 바꿀 경우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는 뜻의 '보유(保有)하다' 정도가 적절하다. '소지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상식적인 생각'들이 물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① ㉔는 '따르면'으로 사전적 의미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면'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는 고전 역학에 '근거하면'이라는 뜻이므로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는 뜻의 '의거(依據)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㉔는 '알게'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게'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

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는 뜻의 '인지(認知)하다.'는 적절하다. ④ ㉔는 '던진다.'로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문제 따위를 제기하다.'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도 같으므로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는 뜻의 '제기(提起)하다'는 적절하다. ⑤ ㉔는 '들어맞는다.'로 사전적 의미는 '정확히 맞다.'이고, 문맥적 의미도 같으므로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는 뜻의 '부합(符合)하다'는 적절하다.

2. 문제해결

2008.11 [44~46]
사회, '공공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지문해설 : 이 글은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일반적 개념으로써 할인율과 사회적 공공 부문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사용되는 요소들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주장의 문제점으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성격이 같을 수 있는가, 단기적이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의 논리가 장기적 성격이 강한 공공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점을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주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4.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어는 사회적 할인율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사회적 할인율이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며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과 같은 사적 부문에 적용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수준에 대해 언급한 ㉔가 글쓴이의 핵심적 질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① 셋째 문단에 언급되고 있지만 보조적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② 글쓴이는 미래 세대의 몫을 공적 성격과 관련짓고 있다. ③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자는 내용만 언급될 뿐 영향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글쓴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영역을 엄격히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은 바로 앞에 제시된 문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생하기 어려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숨은 의미를 추론하여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에는 ‘실제로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보다 높지 않다’는 정보와 ‘정부는 공공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보를 연결하여 이해하면, 그 전제로 적절한 것은 ‘정부는 낮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공공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가 될 것이다.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이 글은 공공 부문의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정보는 이 글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다. ㉢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이 글로부터 추론할 수 없다. ㉣ 공공 부문에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제한 조치의 필요성에까지 연결되기는 어렵다.

46.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는 자연 환경을 개발하려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결정이라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 글의 첫째 문단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은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되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할인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현재의 가치가 떨어지며 수치가 낮을수록 현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는 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이익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따지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 소개한 할인율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의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환경 개발에 대해서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자연 환경 개발에 반대할 것이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개발 업체가 자연 환경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하면 개발에 대해 반대할 것이고 그러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독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크 모터가 CD를 회전시키면,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광 검출기가 CD에서 반사된 광선을 받아들여 랜드와 피트 정보를 구분한다.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이동시켜 CD의 정보를 읽어 낸다. 때때로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움직여 편차를 조정하고, 초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켜 초점을 맞춘다.

[주제] CD 드라이브의 구동 원리 및 정보 판독 시 오류 해결 방법

2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광학계 구동 모터는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照射)될 수 있도록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5문단에서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은다고 언급하고 있다. ㉢ 4문단에 따르면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상이한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편차를 보정한다. ㉤ 2문단에서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을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반면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조사된 모양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할 때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2014.11A [28~30]

기술,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CD 드라이브에서 어떻게 정보를 판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켜야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가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한다고 하였으므로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된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흠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5문단에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원면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상태1>은 좌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의 출력값보다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광선이 해당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에 해당한다. 5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태2>는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져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졌으므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태1>은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해야 하며, <상태2>는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태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으나, <상태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트랙의 전후좌우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태1>의 출력값의 총합은 10이고, <상태2>의 출력값의 총합은 16이므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1>보다 <상태2>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③, ④ <상태1>은 광선이 트랙의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상태2>는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졌으므로,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해야 한다.

2016.11B [25~28]

사회, '부관의 법률적 효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수강료 지불과 관련된 계약을 두고 벌인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의 분쟁을 예로 들어 계약서에 추가되는 '부관', 즉 '기한'과 '조건'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에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기한'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한이 충족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확정 판결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제] 계약에서 덧붙이는 '기한'과 '조건'이 갖는 법률적 효력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고,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장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때의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

에서,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조건’에서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면 기판력이 인정된다. ⑤ 법률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기판력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P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수강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만일 첫 번째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승소하였으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에서 ‘정지 조건’, 즉 계약 조건이 실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계약이 유효하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수강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수강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첫 번째 판결에서는 E가 승소하는 상황이므로 판결문에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이유가 없다. ④ 두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황이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달성된 것이므로 P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⑤ P가 승소하는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첫 번째 판결에서 E가 승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첫 번째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두 번째 판결에서 P가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무효라면 P가 승소할 수 없게 된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나)의 경우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확정 판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경우에 같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툴 수 없다. ② (가)의 경우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의 경우 금전을 갚아달라는 갑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나)의 경우 갑기로 한 날을 2015년 11월 30일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므로 그 기간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을 갑기로 한 날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28.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부가하다’는 ‘주된 것에 덧붙이다.’는 의미이므로 ⑥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수취하다’는 ‘거두어 모으다.’, ‘받아서 가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는 의미의 ‘수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지시하다’는 ‘가리켜 보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는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른다.’는 의미의 ‘지칭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형성되다’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는 의미의 ‘발생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경유하다’는 ‘어떤 곳을 거쳐 지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⑥는 ‘어떤 단계나 시기, 장소를 거치다.’는 의미의 ‘경과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2017.09 [35~39]
사회,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법인격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단 법인의 개념과 성격을 소개한 다음 법인격 부인론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된 사단과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이 되어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도 사단 성격의 법인이며 대표적인 회사 형태로는 주식회사가 있다. 일인 주식회사에서 사단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35.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사단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며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며, 사단성을 갖

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사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단은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 중간 부분에서 사단이 갖춘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하며, 사단은 운영 기구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 중간 부분에서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설명하고, 2문단 둘째 문장에서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 측면에서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하는데,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라고 정의되고,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6. 핵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을 참고할 때, 회사는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는다. 2문단을 참고할 때, 일인 주식회사도 회사의 일종이므로 법인격을 갖는 것은 일인 주식회사이다. ③ 3문단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④ 3문단에서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의결기관으로 둔다고 진술되어 있다. ⑤ 2문단에서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7.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인 '허울'이 포함된 문장은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이다. 이로 보아 '허울'의 문맥적 의미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 회사 자체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다 할지라도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㉓와 ㉔는 문맥적으로 사단 법인과 사원 개인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원 개인은 법인의 법인격과는 구별되므로 사단이 진 빚을

갚을 의무는 사단에게 있는 것인지 사원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③ 1문단에서 사단은 사람들의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는데,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지 않지만 법인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㉔의 문맥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이다. ④ ㉓는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㉔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또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경우 ㉔에 입각하여 회사가 아니라 일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져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②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법인격 부인론은 특정 거래 관계와 관하여서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④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지만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39.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㉑의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비(具備)하다'는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의 뜻이므로 ㉑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구비하다'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겸비(兼備)하다'는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의 뜻이다. ③ '대비(對備)하다'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의 뜻이다. ④ '예비(豫備)하다'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다'의 뜻이다. ⑤ '정비(整備)하다'는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의 뜻이다.

2017.11 [37~42]

사회, 보험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보험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지 의무라는 법적 제도가 있다. 고지 의무를 통해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것이다.

[주제]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 실현을 위한 법적 의무

37.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글의 중심 화제를 찾기 위해서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글의 1문단에서는 보험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한 후, 2문단에서는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3문단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고지 의무를 소개한 후 4, 5, 6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험사의 상품 판매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험 상품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을 해야 보험이 해지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서 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상법에서 보험사에게 계약 해지권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계약 해지권은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잘못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여하는 권한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가]에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보험료/보험금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공동체 B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은 공동체 A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보다 두 배가 높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면 B에서의 보험료는 A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같다면 A에서의 보험금은 B보다 두 배 많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결국 B에서 사고 발생 확률은 A의 두 배이지만 보험금은 A가 B보다 두 배 많으므로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공정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도 두 배로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공정한 보험에 따라 보험료도 두 배로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는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B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은 A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의 두 배이다. 따라서 A와 B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같다고 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보험료율은 보험료/보험금이다. 따라서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같다면 B에서의 보험료는 A에서의 보험료보다 두 배 많아야 한다.

4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진실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④ 3, 4문단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고지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고지 의무는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로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보험사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B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해지권 행사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5문단에서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 보험사는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B에게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하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의 해지권은 배제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하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의 해지권은 배제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B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㉞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또는 그런 준비.’의 의미이다. 그런데 ㉠에서의 대비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와 선지 모두,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와 선지 모두,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와 선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와 선지 모두,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움.’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3. 과정서술

2016.09B [25~2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는데, ㉞은 혈관내피 성장인자에 작용하여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은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는 효소에 작용하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이마티닙’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이지만, ㉢‘파클리탁셀’은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이다. ㉡ ㉢‘파클리탁셀’은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또한 ㉣‘베바시주맙’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을 방해하여 새로운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 ㉣ 모두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마티닙’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에 작용하여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베바시주맙’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돌연변이 유전자와는 상관없다. ㉤ 3문단에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가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만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문단을 보면 오히려 ㉣‘베바시주맙’이 여러 종류의 암에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보기>의 암세포는 시험관 속의 액체 속에서 세포 분열을 한 후 작은 암덩이로 자라고, 그 뒤에 증식하지 않았다. 반면 실험동물의 체내에 들어간 암세포는 증식을 거쳐 종양으로 자라났다. 이는 시험관은 종양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고, 동물의 체내는 종양이 자랄 수 있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험관 액체 속의 암세포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함께 넣는다 하여도 암세포가 증식하는데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자라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Bcr-Abl 단백질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로 암세포가 특정되지 않은 <보기>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물에게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자랐지만, 동일한 암세포를 시험관 속에 액체에 넣었을 때 종양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시험관 속의 액체가 종양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 혈관 생성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 모두에게 암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입된 암세포에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④ 자라난 종양의 일부 조직 속에 혈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⑤ 2문단에서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다한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입된 암세포가 커다란 종양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포증식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7.06 [16~19]

과학,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인공 신경망은 인간의 신경 조직을 모델링하여 만든 것으로,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입력 단자와 입력값들을 처리하는 부분, 출력 단자로 구성된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들을 바탕으로 0과 1이라는 출력값을 얻는다. 인공 신경망은 이러한 기능을 지닌 다수의 퍼셉트론들이 여러 계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뉘는데,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에는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을 만들고, 이를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이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면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미 제공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오차 값을 구한다. 오차 값의 일부는 입력층의 퍼셉트론에 있는 가중치에 더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가중치가 갱신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출력값은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어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그리고 출력 값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

[주제]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의 과학적 원리

16. 내용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치의 합, 즉 가중합을 구한다. 그리고 이를 '임계치'와 비교하여 0과 1이라는 출력값을 내보낸다. 그런데 '가중합'과 비교하는 '임계치'는 2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고정된' 값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

용한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④ 2문단에서 가중합을 '임계치'와 비교하여 가중합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라는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고 했다. ⑤ 5문단에서 인공 신경망의 학습 단계에서는 정답 값에서 출력층의 '출력값'을 뺀 오차 값을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에 더한다고 했다.

1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가중치의 갱신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는 여러 개이지만, 출력 단자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② 5문단에서 오차 값은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빼서 구한다고 했으므로, 둘이 같으면 오차 값은 0이 된다. ③ 3문단에서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된다고 했다. ④ 1문단에서 퍼셉트론은 인간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인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라고 했다.

1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후에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고 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야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에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색깔과 형태가 다른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4문단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에서는 색깔과 형태에 속하는 입력값은 각각 다른 입력 단자에 입력해야 한다. ④ 5문단에서 가중치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고 했다. ⑤ 4문단에서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정했다면 출력값이 '0'인 경우에는 정답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정했다면 출력값이 '0'일 경우에는 정답, '1'일 경우에는 정답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다고 했다. 이를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면 가중합은 '0.5×1+0.5×0+0.1×1', 즉 '0.6'이 된다.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0이다. 이때 오차 값은 정답에 해당하는 값인 1에서 출력값인 0을 뺀 '1'이 된다. 그런데 이 오차값의 일부가 입력 단자의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므로, [B]로 한번 학습시키면 가중치 Wa, Wb, Wc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퍼셉트론을 이용한 학습 단계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학습 단계를 마쳐야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고 했으므로,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보기>에서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지 않을 때 1을 출력한다고 했으므로, 퍼셉트론이 1을 출력했다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았다고 볼 수 없다. ④ 5문단에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학습 과정이 반복될수록 출력값이 정답에 수렴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의 경우에는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정답인 '1'에 수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경우, 가중합은 입력 단자 a, b, c의 현재 가중치에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인 1, 0, 1을 각각 곱한 후, 이를 더하여 얻은 값 0.6이 된다. 그런데 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1이 아니라 0이다.

2017.11 [33~36]

과학,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지문해설 : 이 글은 반추 동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되는데 인간과 반추동물 모두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위가 넷으로 이루어진 반추 동물은 섬유소를 섭취하면,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의 효소 복합체에 의해 셀룰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이 포도당은 다시 F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데, 이 과정의 대사산물로 아세트산과 숙신산이 발생한다. 이때 대사산물인 아세트산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과 체지방 합성에 이용되고 그리고 숙신산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주요 재료인 프로피온산을 합성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된다. 비섬유소인 녹말은 반추위에서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은 S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S는 산성도에 따라 중성일 때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을, 산성일 때에는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다. 젖산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한편 비섬유소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S가 과도하게 성장하면 젖산 배출이 많아지고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반추위 내

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F, S의 생장이 멈추고 L과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급증하여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주제]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3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자신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과 얽혀 있는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분해된 포도당은 F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사람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해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통해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셀룰로스의 구조를 끊고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으며, 반추위 미생물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했을 때 유발된다.

34.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㉞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중성일 때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 등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고, 산성도가 높아지면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다. 그러나 5문단에 따르면, ㉞는 젖산 생성 미생물로서 산성도에 따라 젖산의 배출 양에만 영향을 줄 뿐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는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가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며, ㉞는 세포 외부의 pH가 5.5 이하가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에서는 ㉠, ㉞ 모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포도당을 분해하며, ㉠는 포도당을 생존 유지와 성장에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배출하는데, 특히 아세트산은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 또 ㉞ 역시 산성도가 중성일 때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이는 아세트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할 것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산성도가 높아지면 pH가 6.0이하로 떨어지므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한 ㉞는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의 섭취가 짧은 시간 안에 급증하면 ㉞의 생장이 촉진되어 젖산 배출이 증가하고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

는 세포 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여 생장이 감소하고, ㉔는 왕성하게 성장할 것이다.

35.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혐유소는 반추위 미생물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혐유소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포도당으로 합성되지는 않는다. 또 비혐유소도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㉔에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㉓, ㉔, ㉕). 하지만 혐유소가 F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이 되고, 비혐유소가 S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S의 에너지원이 되므로 ㉔에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2문단에 따르면, F는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데 이때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S는 산성도에 따라 아세트산과 에탄올,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며, 이 중 아세트산과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에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 F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S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은 S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3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혐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이 배출하는 대사산물이다. 산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대사산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비혐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이므로 숙신산의 배출은 반추위의 산성도와는 관련이 없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비혐유소인 녹말의 양이 충분하고 산성도가 높을 때 대사산물로 배출되는 것이므로 중성일 때보다 산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따라서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프로피온산의 양이 증가하므로 포도당의 양도 증가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이 분해한 포도당을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가 pH 6.0 이하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가 산

성의 환경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2018.06 [30~34]

기술,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을 설명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DNS 스푸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IP 주소 대신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IP 주소는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려워서, 이를 대신 하여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이름을 이용한다. 도메인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과정은, 웹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인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IP 주소를 묻게 되는데 이때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UDP는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제일 먼저 도착한 응답을 신뢰하게 되는 허점이 있는데, DNS 스푸핑은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주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시 이용하는 UDP 프로토콜의 허점을 이용하여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3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의하면 DHCP는 유동 IP 주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4문단을 보면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하는 경우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할 때이다. 따라서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의하면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다. 이 글에는 인터넷 프로토콜(IP, 2문단), DHCP 프로토콜(3문단), UDP 프로토콜(5문단)이라는 세 종류의 프로토콜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단에서 이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을 보면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문단에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5문단에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라고 제시되어 있다.

31.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㉞는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이다. ㉜는 클라이언트가 ㉠에서 네임서버에 보낸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네임서버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때 네임서버는 자신의 목록에 해당 IP 주소가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므로, 네임서버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늘 찾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㉜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을 보면, 네임 서버는 질의 내용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자신의 목록에서 찾다가, 자신의 목록에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알려주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간다. 따라서 ㉠에서 ㉠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패킷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네임서버이므로 수신측은 다를 수밖에 없다. ② ㉠에서 ㉠가 두 번 동작했다면, 질의 패킷을 받은 첫 번째 네임서버의 목록에 질의를 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받아 ㉠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 ㉠가 동작한 것이다. 즉 첫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다른(두 번째)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요청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만, 응답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첫 번째 네임서버와 두 번째 네임서버로 서로 다르므로 송신측이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는 응답 패킷이 버려지는 상황이다. 6문단에 의하면 ㉠의 상황에서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한다. 그런데 5문단에 의하면 UDP는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 상황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은 공격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네임서버가 보낸 것이다. 따라서 ㉠에는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옳은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⑤ ㉠ 상황에서 ㉠는 공격자가 보낸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 IP 주소는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아니다.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에 포함되어 있다.

3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보면 사실 IP 주소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은 분별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 IP 주소가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려면 사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같은 것

은 구별되지 않아서 식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DNS에 대한 설명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DNS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4문단에 의하면 이때의 IP 주소는 ‘공인 IP 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하였고, DNS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DNS가 필요 없는데, 3문단에서 사실 IP 주소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된다고 했으므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실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IP주소로 변환하는 것이다. ③ 3문단에 의하면 유동 IP 주소는 DHCP가 각 컴퓨터에 부여하는데,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 부여했던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는 것은,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2문단에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④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가 중복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고정 IP 주소 방식은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선지의 내용대로 동일한 IP 주소를 부여하면 중복 지정을 하는 것이 되므로 글의 내용에 어긋난다. 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컴퓨터들에도 동일한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33.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지문에 따르면 DNS 스푸핑은 DNS를 이용하여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하지 않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hosts’ 파일에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적혀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네임서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보기>에 제시된, 클라이언트가 hosts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지 못한 경우이므로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게 된다. 이렇

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일컫는 용어이다.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아니다. ③ <보기>에 따르면 hosts 파일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해 해당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게 된다. 이렇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아니다.

3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포함된 문장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IP 주소를 숫자로 표를 하여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다른 것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서술어인 ㉠은 외부로 드러낸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이는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 보이다'의 뜻을 가진 '표시(標示)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포함된 문장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고유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을 지닌 '생성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제조(製造)되다'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이 만들어지다.' 혹은 '원료에 인공이 가하여져 정교한 제품이 만들어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포함된 문장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IP 주소 대신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을 설명한 것으로, 도메인 네임이 어떤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은 문맥상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 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성(構成)되다'이다. '발생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포함된 문장은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를 통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인정(認定)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⑤ ㉤이 포함된 문장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패킷을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이다. 이때 ㉤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주고받을 때 UDP 프로토콜의 '방식에 따라' 혹은 '그 방식을 이용하여'라는 뜻이다. 그런데 '비교(比較)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4. 통시적(시간순) 구조

2011.11 [32~36]

과학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지문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율리우스력과 대비하여 그레고리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레고리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특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레고리력의 제정은 제정 당시로서는 역법 개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역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그레고리력이 정확성을 기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주제] 그레고리력의 제정 경위와 특성

32.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일치·불일치 파악)

정답해설 :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라는 구절에 주목하면 릴리우스는 교회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하였음을, 즉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교황청은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게 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여 한 번에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사이의 10일의 오차를 수정하였다. ② 부활절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함에 따라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함으로 인해 그레고리력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릴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고,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 ④ 릴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다. 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제정되었다.

33. 추론적 사고(적절한 반응 추리)

정답해설 : 태양력, 즉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마련한 릴리우스는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인 항성년과,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인 회귀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역법을 만들고자 했다. [정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는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으며, 음력에서는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②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에서는 태양의 운동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하고자 했고, 음력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365일 5시간 49분 16초)을 채택한 것인데, 이는 보름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삼은 음력의 열두달(354일)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1년이 354일인 평년에 한 달을 추가한 것이고 율리우스력의 윤년은 366일이다.

34. 사실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보다 후대에 나타났는데,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한 것이며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이고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이 되므로 1700년은 평년이 되고, ㉡에서는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오기에 1700년은 윤년이 된다. ③ ㉠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이 되므로 4의 배수인 해는 윤년이 되는 ㉡보다 윤년이 자주 돌아온다고 말할 수 없다.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⑤ ㉠이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으며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35. 창의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식당 중심은 태양에 대응하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도는 철수는 지구에 대응한다. 철수가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에서 출발하여 다시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항성년에 대응한다.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는 항성에 대응하는데, 태양과 지구와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항성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에서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이 회귀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철수가 원래의 식탁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 식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대응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②③④ ㉡가 지구, ㉣가 회귀년, ㉤가 항성년에 대응한다는 사실에 위배된다.

36. 어휘(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라는 문장의 ‘으로’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②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④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2014.11A [16~18]
과학,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지문해설 : 이 글은 분젠과 키르히호프가 창안한 분광 분석법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분광 분석법이 인접 과학 영역인 천문학에 활용됨으로써 과학사에 남긴 업적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분젠과 키르히호프는 불꽃 반응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후 이러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화합물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광 분석법은 키르히호프에 의해 천문학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키르히호프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나온 금속 원소의 스펙트럼을 태양빛의 스펙트럼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태양과 같은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히는 업적을 이르게 되었다.

[주제]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1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는 분광 분석법이 천문학 분야로 확장되어 태양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는 이러한 분광 분석법이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인접 과학 영역에 적용되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내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천체에 가지 않고도 천체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키르히호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광 분석법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광 분석법이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했다고 볼 수 없다. ②, ④ 3문단에는,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빛 스펙트럼에 있는 검은 선들을 발견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빛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낸 것이나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한 것은 키르히호프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버너를 고안하여 물질 고유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꽃 반응을 통해 물질 고유의 불꽃색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분젠의 연구 이전에 발견된 사실로 볼 수 있다.

17.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분젠과 키르히호프는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의 위치는 금속이 흡원소로 존

재하든 화합물로 존재하든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속 원소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는, 분광 분석법을 통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분광 분석법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루비듐이 분광 분석법 출현 이전에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될 때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키르히호프는 태양빛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D선이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4문단 처음 부분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철, 헬륨과 같은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트륨의 존재가 철의 존재보다 먼저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분젠은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버너를 고안하였으며, 이러한 버너를 고안한 이후에도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 분간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젠이 금속 화합물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는 버너를 고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항성 의 검은 선들은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언급되어 있고 이 글의 3문단에는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과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3문단에서 천체의 스펙트럼에서 나온 검은 선들은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항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태양빛 스펙트럼의 D선과 나트륨의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분광 분석을 통해 태양 대기에 나트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기>에서 항성 의 검은 선 중에는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항성 에는 나트륨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항성 는 태양이 아니다. ②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항성 의 검은 선들은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항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항성 의 대기 속에 있는 리튬이 빛을 흡수하여 생긴 검은 선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항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나트륨 스펙트럼의 선과 겹쳐지는 것은 있지만 리튬의 스펙트럼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항성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태양빛 스펙트럼에는 D선 이외에도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서 검은 선들이 나타났다고 언급되어 있다. 같은 원리로 항성 의 스펙트럼에도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보기>에 제시된 나트륨 스펙트럼과 겹쳐지는 검은 선을 들 수 있다.

2016.09B [21~24]

사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 곧 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는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는 과학 혁명으로 인해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과학과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또한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을 중시한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은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18,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활동적 삶이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심지어 인간을 기계처럼 관리하는 이론까지 만들어졌다. 물론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사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20세기 말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끝없이 몰아세우고 있다. 사색적 삶을 잊은 채 활동적 삶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주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의 양상

21.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테일러는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모색했다. 그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는데, 이로 인해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색적 삶의 영역을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중시했다. ②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인해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은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③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⑤ 20세기 초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22. 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은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는 활동적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즉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목소리이다. 사색적 삶은 자극에 예민한 삶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과 관계가 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계 기술과 산업 현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진술이며,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② 일하기 위한 삶을 중시하는 서술이며,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④ ‘나태’는 여유로운 삶과 관련이 있으며, 나태가 사람을 녹슬게 한다는 생각은 활동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⑤ 인간을 사색하지 못하는 기계라고 여기는 진술이며,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0세기 후반 이후 ‘후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성과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사회인 규율 사회가 후근대 사회인 성과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규율 사회에서는 이 요구가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을 뿐이다. 즉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만 달라졌던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근대 사회에서는 기계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을 확립했는데, 이런 노동 규율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을 착취하는 사회의 외적 강제에 해당한다.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자기 착취를 함으로써 결국 피로라는 만성 질환을 앓게 한다. ④ 기술 발달이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담고 있지만,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 ⑤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을 위해 자기 착취를 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 올리려는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이다.

2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포섭(包攝)’은 ‘상대편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이.’의 의미로, 이 말에는 ‘너그러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을 너그러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는 ‘포용(包容)’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추구(追求)’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을 이를 때까지 뒤쫓아 구함.’이다. ② ‘경약(儉約)’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씀.’이다. ③ ‘응용(應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이론이나 이미 얻은 지식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나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이다. ④ ‘모색(摸索)’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이다.

2017.09 [25~30]

기술, ‘콘크리트를 통해 본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

지문해설 : 이 글은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쓰이는 건축 재료인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콘크리트는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로마 시대에 건축된 판테온에 쓰일 정도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골재를 반죽한 혼합물로, 골재의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쓰임에 따라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비해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지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한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사보아 주택을 건축했다.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의 결과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했는데, 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콘크리트의 발전 과정은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이 유기적인 관계임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 과정

25.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콘크리트는 예로부터 많이 쓰였지만, 압축력에 비해 인장력이 약한 특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개발되었다. 이처럼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을 보여 주면서 판테온, 사보아 주택, 김벨 미술관의 공간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콘크리트의 특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의 특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콘크리트가 로마 시대에도 쓰였다는 점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 기원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건축물들의 한계를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④ 콘크리트의 물질적 특성인 강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시각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 각 재료와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도 탐색하고 있지도 않다. ⑤ 로마 시대, 근대, 근대 이후의 건축물의 특성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건축물들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2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보아 주택’은 지상의 출입구, 2층의 주거 공간, 지붕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보아 주택은 층을 구분하였다. 그에 반해 ‘김벨 미술관’은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판테온의 돔은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였다. ②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보아 주택의 지붕은 정원이 조성되어 여유 있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③ 5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킴벨 미술관은 인장 강도를 높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기둥 사이를 넓게 벌려 개방감을 주었다. ④ 1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판테온의 지붕 중앙에는 원형의 천장을 내어 빛을 내부 공간에 들어오도록 하였고,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보아 주택의 목욕실 지붕에는 작은 천장을 설치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2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넣은 철근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부어 만든 것으로, 콘크리트가 굳은 뒤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었다. 철근이 줄어들면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해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철재가 콘크리트 보다 훨씬 크다. 철근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에 보강재인 철근을 넣은 것으로 철근보다는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볼 수 없다. ② 3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철근은 압축력이 아니라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위주로 보강한다. ③ 2문단과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철근을 넣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부어 굳혀 만드는 것으로, 콘크리트 반죽이 굳는 동안 수화 반응이 일어난다. ⑤ 2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콘크리트는 서로 다른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강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했다. 3문단에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는 0.15라고 했다. 따라서 A(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와 B(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A와 B의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포아송 비를 구하기 위한 수식의 분모의 절댓값이 같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므로 포아송 비를 구하기 위한 수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절댓값이 A가 B보다 더 클 것이다. 즉 A의 지름이 B의 지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는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더 적다고 했다. ② 철재의 포아송 비가 0.3이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의 변화의 절댓값이 분자에 해당하는 지름의 변화의 절댓값보다 크다. ③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가 0.15이므로, 분자에 해당하는 지름의

변화의 절댓값이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의 변화의 절댓값보다 작다. ⑤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A와 B의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포아송 비에서 분자의 절댓값이 같다는 것이다. 포아송 비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크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의 변화의 절댓값이 B가 A보다 더 클 것이다. 즉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덜 줄어들었을 것이다.

29.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철골은 산화하여 녹이 슬 수 있으므로, 건축에 철근을 사용하면 산화방지 조치를 한다고 했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에 쓰인 철골 기둥에도 산화 방지 조치를 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녀 규격화된 직선 형태로 제작된다고 했다. 따라서 철골은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만드는 재료로 적절하지 않다. ③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로, 킴벨 미술관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두 미술관은 각각의 건축 재료를 활용해 기둥 사이를 넓혀 개방감이 들도록 하였다. 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여덟 개의 철골 기둥만으로 평면 지붕을 떠받치게 하여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어 지붕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준다. 사보아 주택도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를 지탱하게 하여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3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원형(圓形)’은 문맥상 지붕의 중앙에 있는 천장의 모양을 이르는 것으로, ‘둥근 모양.’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의 밑줄 친 ‘원형(原型)’은 문맥상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산물(產物)’은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였다. ③ ‘점성(粘性)’은 ‘차지고 끈끈한 성질.’의 의미로 쓰였다. ④ ‘위주(爲主)’는 ‘ 으뜸으로 삼음.’의 의미로 쓰였다. ⑤ ‘영감(靈感)’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의 의미로 쓰였다.

2017.09 [31~34]
과학, ‘열역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열과 일을 둘러싼 과학자들의 탐구를 소개하고 있다. 카르노는 열의 실체인 칼로릭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일을 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보았다. 한편 줄은 열과 일은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며 상호 전환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

아냈다. 그 후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 설명이 줄의 발견과 위배됨을 지적했다. 하지만 열기관의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리고 클라우지우스는 열의 방향성과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주제] 열역학에 대한 여러 과학자들의 탐구

31.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카르노의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4문단을 볼 때, 칼로릭 이론의 오류는 톰슨에 의해 밝혀졌는데, 톰슨은 열기관의 열효율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이는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다. ② 2문단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지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는 진술은 맞지 않다. ③ 1문단에서 칼로릭 이론은 열을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졌다고 해도 쇠구슬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진술은 맞지 않다.

32.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카르노에 따르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줄이 입증한 사실에 따르면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따라서 칼로릭 이론으로는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을 볼 때,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은 증가성을 가지고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열과 일의 상호 전환을 볼 때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다’라는 진술은 맞지 않다. ③ ④는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계된 것으로 에너지의 방향성과는 관계가 없다. ④ ⑤는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카르노가 활용한 칼로릭 이론에 대한 톰슨의 지적이다. ⑤ ⑥는 칼로릭 이론에 대한 톰슨의 지적이다. 다만 4문단에서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카르노의 이론이 지지되고 있다.

33.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일과 열은 상호 전환 가능한 물리

량으로서 증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5문단에서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볼 때, 열기관의 ‘열의 양 (A)’과 ‘일의 양(B)’의 관계를 구하면 그 값은 100%를 절대로 초과할 수 없고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은 열손실을 말하므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는 그 값과 상관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을 볼 때, 값은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일정한 것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지 않고 작다. ② 5문단을 볼 때, 값은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지 않고 작다. ③ 5문단을 볼 때, 값은 흡수한 열의 양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다. ④ 5문단을 볼 때, 값은 두 작동 온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다.

3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㉞은 ‘기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에서의 ‘어긋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㉞은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부르는 법이다.’에서 ‘부르다’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㉞은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에서 ‘다루다’는 ‘기계나 기구 따위를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㉞은 ‘액체 따위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나 넘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에서 ‘흐르다’는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 쏠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㉞은 ‘어떤 일이 일어나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에서 ‘생기다’는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018.09 [38~42]
사회, ‘집합 의례’**

지문해설: ‘집합 의례’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 및 양상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글이다. 뒤르켐에 따르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이를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그는 또한

현대 사회에서 집합 의례가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개인들이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겼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꾼 기능주의 이론을 주창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위기 시기에는 잠재해 있던 가치가 부상하여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알렉산더는 파슨스, 스멜스와 달리 집합 의례가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거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공연론’을 통해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집합 의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38.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중심 화제인 ‘집합 의례’를 설명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뒤르켐의 이론이 파슨스와 스멜서에 의해 보완되고 있으며,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의 한계가 알렉산더의 견해로 보완되고 있으므로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집합 의례에 대해 학자들이 선행 연구를 수용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주요 학자들이 이에 대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집합 의례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파슨스, 스멜서와 알렉산더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상반된 견해를 절충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⑤ 집합 의례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 중심 화제 파악

뒤르켐은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므로 공동체 성원들이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집합 의례를 통해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집합 의례를 통해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으로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가 행해진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40. 세부 정보 파악

파슨스와 스멜서의 견해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가치, 즉 성스러움이 사회적 삶 아래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위기 시기에 부상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가다가 위기 시기에 그들의 관심을 가치, 즉 성스러움에 두는 것이다. 이는 관심이 속에서 성으로 옮겨감을 나타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해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성이 아니라 속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 역시 성이 아닌 속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위기 시기에 봉착하게 되면 집합 의례를 통해 흐트러진 항상성을 회복하려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위기 시기에서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기 시기에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1.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파슨스, 스멜서는 집합 의례의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유기체가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처럼 결과가 정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알렉산더는 집합 의례는 현대 사회에서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역시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파슨스, 스멜서는 집합 의례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의 통합이 회복될 것이라 보았다. 사회 통합이 회복된다는 것은 도덕 공동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 달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집합 의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알렉산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 것은 파슨스, 스멜서이다.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파슨스, 스멜서는 위기 시기에 사회적 삶 아래 잠재해 있던 성이 부상하며 속보다 우선시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알렉산더 역시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구체화한 대본 등을 들고 있으므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 아니다.

4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알렉산더의 견해에 따르면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다. <보기>의 사례는 대본, 배우, 미장센 등의 공연 요소들이 융합되는 사회적 공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각장 유치에 대해 A시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공통된 가치를 주민들이 중시하게 된다면 가치의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각장의 유치를 둘러싼 논란은 A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통해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중앙 언론은 상징적 생산 수단으로, 경찰은 사회적 권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에 의해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지역 경제 발전에 동의하고 있지만 소각장의 유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5. 한 대상을 조지는 지문

**2014.06B [24~27]
예술, 캄피돌리오 광장**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광장의 타원형 공간 구성이 신성한 돌 옴팔로스를 본뜬 것으로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기마상으로 인해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제]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의 의미

24.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장의 중심인 기마상이 서 있는 곳의 별 장식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은 중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타원과 원의 조합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② 광장에 놓은 것은 신성

한 돌인 옴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지, 옴팔로스를 배치한 것은 아니다. ③ 옴팔로스는 중심을 뜻하는 것이며, 캄피돌리오 광장에서는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확산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기마상에서 뿔어나온 광장의 문양들은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대칭성과 관련이 없다.

25.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는 광장이 기마상으로 인해 원으로 인식되면서 두 개의 초점이 사라지고 하나의 중심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두 개의 초점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옴팔로스가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원이 가진 집중성으로 인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 4문단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위계감, 우주의 중심에서 있는 지배자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26.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원은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주변을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은 집중성을 강조하는 반면, ㉡는 확산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가 집중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어느 곳에 있던 중심의 기마상에서 선을 두게 되지만 ㉡는 원통의 벽면을 향하게 된다. ② ㉠은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형성되지만 ㉡는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이 없다. ④ ㉠은 중심이 강조되지만, ㉡는 둘레가 강조된다. ⑤ ㉠은 원의 집중성을, ㉡는 원의 확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7.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분할(分割)’은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은 하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이므로 ‘분할된’으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조(製造)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형상을 이룸을 뜻하는 형성(形成)이나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제작(製作)이 더 적절하다. ② 지적(指摘)은 꼭 집어서 가리키거나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것을 뜻하는 지칭(指稱)이 더 적절하다. ③ 소진(消盡)은 다 써서 없앤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사라져 없어짐을 뜻하는 소실(消失)이나 소멸(消滅)이 더 적절하다. ⑤ 기립(起立)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서는 것을 뜻한다. 문맥상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의 ‘위치(位置)’가 적절하다.

2014.11A [19~21]

예술, '선암사 승선교에 담긴 미의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선암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돌다리인 승선교를 제재로 하여, 승선교의 건축 원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승선교는 계곡으로 끊긴 산길을 이어줌으로써 경건한 세계와 번잡한 속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무엇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어, 번잡함을 안고 산길을 오르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해준다. 승선교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인데,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층의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이 대비되면서 전체적으로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멀리서 승선교를 바라볼 때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이는 산자락의 풍경이나,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가 홍예와 자연스럽게 원으로 이어지는 풍경, 그리고 승선교 주변 수목들의 그림자가 수면에 아른거리는 풍경 등은 승선교와 어우러지면서 계절마다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자연 속에서 극적인 합일을 만들어낸다.

[주제] 홍예다리인 승선교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19.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멀리서 바라본 승선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때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아도 견고하게 서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서 홍예가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는 양식임을 언급하고 있다. ④ 홍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목조 가설틀은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반원형이다. 사다리꼴 형태를 띠는 것은 홍예를 만들 때 쓰이는 장대석들이다. 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홍예다리가 구조적 안정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승선교와 옥천교가 유사한 위치에 장식을 덧붙였다는 유사성은 있지만, 이 장식에 담긴 의미가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승선교의 홍예 천장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은 사람들이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

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옥천교의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 조각되어 있는 도깨비 형상은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승선교는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천교는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간에서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승선교의 석축은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다소 무질서해 보이지만 옥천교의 석축은 홍예와 마찬가지로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으며 다리 난간에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③ 옥천교는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川) 위에 놓여 있지만, 승선교는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 만들어 설치한 다리이므로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옥천교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인 공간을 잇는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를 잇는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라 할 수 있다.

2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의 '방지한다고'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막아준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활용되었다'는 '이용되었다', '쓰였다' 등으로 무난하게 바꿔 쓸 수 있다. ② '견고하다'가 '굳고 튼튼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돌출'의 의미가 잘 보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의미이다. ⑤ '선사하다'는 '존경·축하·애정의 뜻으로 남에게 선물을 줌.'의 의미이므로 '주다'와 바꿔 쓸 수 있다.

2016.09B [27~30]

예술, '회화주의 사진'

지문해설 : 이 글은 단순히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사진의 위상을 회화와 같은 예술성을 갖춘 위치로 끌어올리려 했던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맹>의 창작 과정과 그 작품에 담긴 작가의 생각, 그리고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분석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를 통해 스타이컨이 작품으로 내놓은 사진에 담긴 다양한 기법 속에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한 그의 노력이 녹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회화주의 사진을 추구했던 스타이컨의 노력

2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맹 또한 이에 동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맹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대리석상인 <빅토르 위고>는 로맹의 작품이다. 스타이컨은 로맹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를 피사체로 삼았을 뿐 빅토르 위고가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회화주의 사진은 현실 재현의 수단인 사진작가가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사진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로맹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으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맹과 스타이컨이 조각의 역할을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볼 수 없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스타이컨의 작품은 밝은 원경과 어두운 근경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화 과정에서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고 했으므로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표적인 구도가 아니라 인화과정에서의 처리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스타이컨은 로맹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근경의 사진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것이 아니며, 원경의 대상인 <빅토르 위고>만 따로 촬영한 것도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은 로맹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맹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로맹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로맹의 작품이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한 것은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해서이다.

29.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작품은 로맹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 따르면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은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주고자 한 스타이컨의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사진에서 원경에서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에서 벗어나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한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하였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맹>이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3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⑤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6. 비례/증감의 마법

**2013.11 [29~31]
과학,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실제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상 기체 방정식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보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없는 이상 기체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

에 실제 기체에 적용하면 맞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실제 기체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방정식은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학 연구의 절차를 잘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보정되는 과정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거리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는 1문단에서, ③, ④는 2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30. 사실적 사고(두 대상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부피가 V인 용기 안에 있는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의 부피를 b라 할 때,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이상 기체에 비해 b만큼 줄어든 V-b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기체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에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과 4문단을 통해 기체 상태 방정식이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4문단을 통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분자의 자체 부피를 b라고 설명했고, 4문단에서 b는 기체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는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31.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서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간 인력에 의해 일어나고, 반발력은 기체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A와 B는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하면서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작다는 것은 A가 B보다 분자 간의 거리가 짧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A가 B보다 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인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나는데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지면 A, B 모두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분자 간의 인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분자 간 상호작용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③ P2에서 P3 사이에서 A는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더 작고 B는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통해 A가 B보다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압력이 P3보다 높을 때는 이상 기체보다 A와 B 모두 그 부피가 크다는 것을 통해 A와 B 모두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는 반발력 때문에 압력을 아무리 높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014.09B [28~29]

과학, '각운동량'

지문해설 : 이 글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인 각운동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운동량은 질량(m),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r), 속도(v)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m \times v \times r$ 로 표현된다.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이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각운동량은 보존된다.(각운동량 보존 법칙) 각 운동량은 '각속도×회전 관성'의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며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회전 관성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이 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피겨 선수의 움직임은 예로 들으로써 글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원리)

28.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에는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을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 회전하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속도, 회전 관성 등의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 보면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는 진술이 있다. 답지에 제시된 쇠공과 플라스틱 공은 크기와 질량이 동일하지만, 플라스틱 공은 속이 차 있고 쇠공은 속이 비어 있다.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 공은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과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까지 배열되어 있으나, 쇠공은 질량 요소들이 모두 회전축으로

부터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쇠공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쇠공의 회전 관성이 더 크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이 돌림힘이다. 팽이가 회전을 멈추는 것은 곧 각운동량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는 없다. ③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회전 관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이다. 따라서 마찰이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든다는 진술은 성립할 수 없다. 1문단에 의하면,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변화하게 하는 것은 각운동량이고, 이에 따라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질량이나 회전축과의 거리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에 두 점이 있다면 중앙의 동일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두 점은 하나의 시곗바늘 위에 있으므로, 동일한 시간에 두 점이 회전하는 각도는 동일하게 된다. 2문단에서 각 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라고 했으므로,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에 있는 두 점의 각속도는 동일하다. 회전축과의 거리는 각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문단에 따르면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지는 것은 회전 관성이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윗글에서 각운동량을 표현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멀면 회전 관성이 커지고 각속도는 작아진다. 반대로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가까우면 회전 관성이 작아지고 각속도는 커진다. <보기>의 상황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각운동량에는 변화가 없다. <보기>에서는 B단계에서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따라서 회전 관성은 작고 각속도는 크다. 그러므로 B 단계의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 하면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A~E 단계의 자세보다 회전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A~E 단계를 거칠 때 회전하게 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4문단의 피겨 선수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겨 선수는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다고 했는데, 이는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E의 각 단계는 각운동량이 모두 같다. ② A~E의 단계는 같은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을 할 때 자세가 변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질량 요소들의 합은 늘 같다. D 단계에서는 B 단계보다 회전축과 질량 요소들의 거

리가 멀기 때문에 각속도가 작은 것이다. ③ B 단계는 질량 요소들과 회전축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회전 관성이 가장 작다.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보존될 것이고, 회전 관성이 가장 작으므로 각속도는 가장 크다. ④ C에서 E로 진행되면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는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회전 관성은 커진다.

2014.11B [26~27]

과학, '지구 상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전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향력은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할 때 위도에 따라 그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이에 따라 적도 상의 특정 지점(자전 속도 1,600 km/h)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자전 속도 1,400 km/h)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했을 때,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 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 지점(북위 30도)은 발사 지점(적도)보다 약 200 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위 30도(1,400 km/h)에서 북위 60도(800 km/h)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두 지점의 자전 속도 차이만큼 발사된 물체가 동쪽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더 커질 뿐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주제]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이유와 그 양상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 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와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지구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고, 3문단에서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가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갖게 되면서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 또한 북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갖게 되면서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편향 현상은 북쪽 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나타나고, 5문단에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은 이동 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 방향이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전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푸코의 진자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진자의 진동면은 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는 전향력에 의해 진자의 진동면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B에서 A로 다시 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면서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문과 연결하여 이해해 보면, ②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져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서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전향력이 더 커짐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더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에는 북반구와 반대로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남극과 북극의 자전 속력은 동일하게 0이고, 4문단에서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동일하게 최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남극과 북극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전향력이 작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편향 현상은 위도가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도의 변화가 없이 적도 상에서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은 축에 해당하는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11B [25~26]
과학,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지문해설 : 이 글은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발생하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슈퍼문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데, 타원 궤도는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지게 된다.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이심률은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작아지게 된다. 달의 타원 궤도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하는데,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할 때 관측된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달의 공전 궤도로 인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을 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양 면이 가장 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된다.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하는데,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주제]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에 따른 천문 현상의 변화

25. 글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천체의 공전 궤도에 존재하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궤도가 원 모양에 가까워지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에

적용해 보면, 달의 이심률은 0.055로 지구의 이심률인 0.017보다 크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가 현재의 달의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미세하게 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금환 일식은 태양이 달에 비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하게 가려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할 때 관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름달의 크기는 원일점일 때가 근지점일 때보다 더 작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고, 이와 반대로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조차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고 설명하면서 이심률에 따른 조차의 변화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이심률 변화 전보다 1월의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7월의 원일점은 더 멀어지게 된다. 이때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과 지구의 근지점에는 변화가 없고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짐으로써 A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지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조차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게 된다. <보기>에서 A지점에서의 조차가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으므로 7월보다는 1월에 달과 지구의 거리가 더 가깝고 이에 따라 7월보다 1월에 조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근지점에 있을 때는 원지점에 있을 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 따라서 1월에 A지점에서는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보다 근지점에 있을 때 조차가 더 커지게 된다. ③ 슈퍼문이 관측된 것은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퍼문이 관측될 때는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더 가깝고 그에 따라 A지점에서의 조차도 더 커지게 된다.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지구가 더 타원 궤도로 공전하면서 원일점이 현재보다 더 멀어지게 된다. 이때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과 지구의 원지점에는 변화가 없고 지구가 태양에서 더 멀어짐으로써 A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2016.11B [29~30]
과학, '빛방울의 종단 속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어떤 유체 속에서 물체가 자유 낙하할 때 작용하는 힘(중력, 부력, 항력)에 대해 설명한 다음, 물체의 낙하 가속도가 0으로 일정해지는 '종단 속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낙하하는 '빛방울'은 처음에 중력 때문에 낙하 속도가 증가하나, 차차 중력이 항력(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함)과 부력의 합과 같아져서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된다. 이렇듯 이동 물체의 최종적으로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주제]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중력, 부력, 항력)과 종단 속도

29. 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부력'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의 부력은 동전의 부피만큼의 액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 동전이 낙하하는 액체의 밀도는 균일하다고 했으므로,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낙하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항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힘으로 부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낙하 운동할 때에는 압력 항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마찰 항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 ② 2문단에 따르면,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압력 항력(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이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한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종단속도는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속도라고 하였으므로, 종단 속도일 때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1문단에

서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였으므로,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잠긴 쇠막대는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30.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는 물체 A, B가 상승 운동을 하다가 중단 속도에 이르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1문단에서 부력은 중력과 항상 반대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에서도 중력은 아래로, 부력은 위로 작용하는데, 부력이 중력보다 크게 작용하므로 상승 운동이 발생한다.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므로, 상승 운동하는 물체의 항력은 중력과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보기>에서의 중단 속도는, 낙하하는 물체의 중단 속도(중력=부력+항력)와 달리, '부력'이 '중력+항력'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1문단에서 부력은 물체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였는데, 같은 밀도의 유체 내에서 같은 부피의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같다. 그러나 ⑤에서처럼 유체의 밀도가 서로 다른 경우, 밀도가 큰 유체 내에서 B에 작용하는 부력은 밀도가 작은 유체 내에서 B에 작용하는 부력보다 크다. 부력이 크게 작용하는 물체의 상승 속도 및 상승 속도에 따른 항력 역시 크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항력은 운동하는 물체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정되어 있는 두 물체의 항력을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 물체 A, B의 부피는 같으므로 각각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물체의 밀도는 B가 A보다 크다고 하였으므로, 각각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부력과 중력(부력-중력)의 차이가 진행 속도를 결정하므로, 물체의 상승 진행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물체의 진행 속도에 따라 커지는 항력 역시 A가 B보다 크다. ③ 1문단에서 중력은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며, 부력은 물체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로 결정된다고 하였으므로, 물체의 고정/운동 여부는 중력과 부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A, B가 일정해진 속도(중단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처음에 부력 때문에 물체의 상승 속도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중력의 합이 부력의 크기와 같기 때문이다. 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중단 속도)에 도달한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018.06 [22~25]

사회, '통화 정책'

지문해설 : 이 글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등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라는 요건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정책 외부 시차'의 발생이나 경기 과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관련해서는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두 입장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각 주장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요건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시작 부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화 정책의 목적을 간단하게 드러냈을 뿐 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의 '예를 들어'라는 표현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1문단에서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이 상승 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 채권의 매수와 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준칙주의'와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재량주의'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 중 경제학자 병은 경기를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이때 1문단에서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시장 이자율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자율(기준금리)이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이자율(기준금리)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어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매 분기 2%를 유지'하려면 1, 2분기에서 미리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정책 외부 시차'가 발생 하면서 2, 3분기에 3%로 제시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이때 2,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을 1%p 떨어뜨려서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가 1.5%p 올라야 가능하다. 즉 ⑤처럼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면 '정책 외부 시차'가 발생하여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2%로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에 따라 3분기 물가 상승률도 2%를 유지하게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분기에서 기준 금리를 2.5%로 인하하게 되면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4%가 될 것이고, 2분기 기준 금리를 2.5%로 유지하게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 역시 4%로 조정될 것이다. ② 1분기에서 기준 금리를 2.5%로 인하하면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4%가 된다. 그리고 2분기에 기준 금리를 4%로 인상하면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다시 3%가 될 것이다. ③ 1분기 기준 금리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2분기 물가 상승률도 3%를 유지하겠지만, 2분기 기준 금리를 5.5%로 인상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2%로 조정될 것이다. ④ 1분기 기준 금리를 5.5%로 인상하면 2분기 물가상승률은 2%로 조정되겠지만, 2분기 기준 금리를 4%로 인하하게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3%로 조정될 것이다.

김.’의 의미이다. ④ ‘유의’는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의 의미이다.

24.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관련하여 준칙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어김으로써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훼손되면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준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즉 ‘준칙주의’의 입장에서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준칙은 잘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③ ‘준칙주의’는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량주의’는 이와 달리 반드시 준칙에 엄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도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⑤ ‘재량주의’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부양’은 두 개의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또는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본문의 ㉞는 침체된 경기를 다시 활발하게 살린다는 의미이므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에서의 ‘부양’은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파급은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침.’의 의미이다. ② ‘발현’은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를 의미한다. ③ ‘수반’은 ‘어떤 일과 더불어 생